

# 지역농협 생산유통 통합 육성

### 익산시, 생산·유통·마케팅 고도화된 계열화... 농가 소득 증대 기대

익산시가 지역농협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을 위해 '산지유통 대역진'의 발전을 미련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지역농협들이 전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을 결합한 통합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해 산지 유통의 거점화, 규모화로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시와 익산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익산 지역 14개 농협은 북부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정현을 익산시장, 김종길 익산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박기배 삼기농협 조합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업무협약식이 13일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관계자들은 익산 원예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북부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필요성을 깊이 공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는 수확한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 및 규격별·품질별 포장 등 상품화 기능을 수행하고 대형 유통업체나 도매 시장에 판매하는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며 출하처를 다원화하는 농산물 마케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원예농산물 주생산지인 북부권역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성공적 건립 시 농산물 유통 비용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별 규모화 및 상품성 향상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

하고 안정적인 관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길 익산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및 박기배 조합운영협의회 의장은 "익산 원예농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 시설로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우리가 염원하는 북부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등 부의안건 상정

### 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최...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군산시의회의(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4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회원 등 시민 10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신동진부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군산발 살피기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신애 의원의 '군산새만금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부 의원의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있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란, 한경봉, 김경식, 서은식, 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중앙분청조정위원회 상정 중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마음으로 군산시의 발전과 군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동네 서점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주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역에 있는 동네 서점들이 단순 서점 기능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동네서점들이 골목 문화의 다양성을 채우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지역에서는 독립서점 5곳을 비

롯해 30여곳의 서점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서점 인증제를 통한 도서 우선구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한 서점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추진하며 문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한 익산청년시청에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설을 지시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관한 청년시청은 청년들의 취·창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문화 복지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도약을 위한 산·학·관 협조체계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 자율주행 시범운영 본격 시동

### 익산시·원광대 공동주관, 자율주행자동차 산·학 포럼 개최

익산시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도약을 위한 산·학·관 협조체계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로서 KTX익산역 중심으로 기존 도로망 환경에 자율주행 리빙랩(Living-lab)을 적용한 익산형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를 위한 대도약을 준비한다.

시는 원광대학교와 공동주관으로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2023년 자율주행자동차 산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산하 미래자동차인력양성개발사업단 주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역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자율주행차 연구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개최됐다.

배명환 한국지능정보체계협회 실장과 이명천 익산시청 건설국장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동향'과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원광대학교 장익환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연구원 이백진 박사, 한국교통연

구원 이종덕 박사, 한밭대학교 도명식 교수, 한국자동차연구원 권성진 센터장이 참여해 익산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추진방향 및 타지구 운영사례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앞으로 시와 산학관 기반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포럼은 기술 기반의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대학과 긴밀한 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익산시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방향과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을 통한 시범도시와 자율주행 리빙랩(Living-lab) 지정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익산시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 스마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원예농산물 현장 밀착 컨설팅 추진

군산시가 원예농산물의 현장 밀착 컨설팅을 통해 원예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예 전라북도 현장컨설팅은 관내 원예농가를 증가시키고, 농업인들의 작물 재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이론과 실습 연계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 능력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기존 원예농가들의 경영개선·재배기술 변화를 통한 고품질화와 수도작 농가들의 노지재배 기계화 재배

로 품목전환을 통한 소득향상을 목표로 컨설팅과 관련 사업을 연계해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현장컨설팅은 5개 작목을 대상으로 △딸기 양액재배 및 온실 환경관리, △고품질 딸론 생산기술, △유립계포도 정형과 생산기술, △양파 전과정 기계화 재배, △소형양배추 분작기/가을작기별 병해충 방제교육 등 체계적이고 배우기 쉽게 작목별·재배시기별 1~2회 실무위주 교육과정을 편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보건소, 난임 시술비 2회 추가 지원

군산시 보건소는 14일 2023년 난임부부 건강보험급여 지원 회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에게 난임 시술비를 2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난임 지원사업은 소득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으로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 여성 중 난임 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회수 소진 자에 한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전북형 난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술을 시작해 올해 종료한 대상자도 소급 적용 가능하며 1인 최대 2회에 한해 시술 종류와 소득별로 차등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접수 시 건강보험적용 회수 종료에 대한 시술의뢰기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등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청년시청,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교육에서 취업박람회까지 익산 청년 취업 준비는 '청년시청' 하나로 통한다.

익산청년시청에서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구직 기술 강화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7일 '단기속성 토의 특강반'을 시작으로 3월에는 상반기 공기업 채용에 대비하여 변화된 채용시스템 및 채용동향부터 모의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취업 스터디 공개야합'을 운영한다.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 또는 지역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 청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청년시청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지난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7%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